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6 호

2023년 3월 22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GC 한국협회-KRX-UN WOMEN-IFC 성평등 캠페인 ‘링더벨’ 결과 공유
2. 2023 Open Day 및 LEAD 그룹 간담회 결과공유
3.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기후 행동” 웨비나 결과공유
4. 기후 앰비션 엑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모집 안내
5. Monthly Insights 3 월호 요약

■ 본부 소식

1. 3.8 여성의날과 디지털 성 격차 해소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업의 4 가지 변화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금호 타이어

■ UNGC & 회원사 뉴스

1. 한국남동발전, 대기업과 잇단 'RE100' MOU
2. Sh 수협은행, 유엔 여성역량강화 원칙(WEPs) 가입
3. "친환경 이어 장애인 고용 창출"...코웨이, ESG 경영 확대
4. SK 케미칼,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 가입..."넷제로 달성 속도"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한국협회-KRX-UN WOMEN-IFC 성평등 캠페인 ‘링더벨’ 결과 공유



3 월 10 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거래소(KRX), 유엔 여성기구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국제금융공사(IFC) 한국사무소가 '제 2 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종을 울리자'는 의미의 '링더벨'은 매년 3 월, 세계 여성의 날(3 월 8 일)을 기념해 전 세계의 증권거래소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입니다. 증권거래소와 상장 기업들이 유엔의 다섯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인 성평등 달성에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90 여개국 110 개 거래소가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올해 링더벨 행사는 유엔 세계 여성의 날 테마인 '모두의 디지털(DigitALL): 성평등을 향한 혁신과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유엔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타종식이 기업 내 성평등,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그널이 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업 내 여성 리더십 향상과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언급하며, 한국거래소는 올해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성평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심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올해 세계 여성의 날 테마가 '성평등을 향한 혁신과 기술'인 것을 설명하며, 유엔 여성기구는 여성들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이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과 소녀들의 복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혁신에 투자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지연 IFC 한국사무소 대표는 코로나 대유행, 기후변화 위기 및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성평등이 빈곤퇴치와 상생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성평등은 여전히 한국을 비롯,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종식에 참석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는 호주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투자, 여성의 권익신장, 사회 각계각층에 여성의 완전하고 유의미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평등이 단순히 옳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회복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며, 모두를 위한 번영과 포용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DigitAl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Gender Equality’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문수복 KAIST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먼저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최고디지털책임자(CDO)·부사장**이 『혁신은 다양성의 생태계로부터』의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김명희 부사장은 여성 인력이 드문 디지털/ICT 영역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업계에 존재하는 성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환경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에는 남성 대비 여성 인력의 비율을 높이는 ‘양적인 증가’와 조직 내 여성 리더들이 목소리를 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질적인 증가’가 있다고 설명하며, 여성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멘토링보다 소폰서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Rosalind Chow 교수의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해당 메시지를 신한금융그룹에 접목시키기 위해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Women in Tech(WIT)를 런칭했다고 소개했으며,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환영 받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WIT 와 같이 여성 직원을 소폰서링하는 프로그램들이 확장되고 기업 내 다양성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승 걸스인텍코리아(Girls in Tech Korea) 지부장은 『STEM 분야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현승 지부장은 리더는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여성이 리더십 승진 시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쌓는 경우가 있으며,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온 무의식 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 조직 차원의 발전을 방해하고, 이러한 무의식 속 편견을 견제하고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DEI 를 조직 문화에 정착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DEI 추진 활동, HR 프로그램, DEI 데이터 관리, 리더십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2023 Open Day 및 LEAD 그룹 간담회 결과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3년 1~2월 총 6회 회원사·비회원사 Open Day 및 LEAD 그룹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회원사 Open Day: 3회(1월 31일, 2월 14일, 2월 28일), 81개사 참석
- 비회원사 Open Day: 2회(2월 9일, 2월 23일), 64개사 참석
- LEAD 그룹 간담회: 1회(2월 21일), 10개사 참석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Open Day 는 △2023 UNGC 임팩트 공유, △2023년 UNGC 한국협회 주요 사업계획 안내, △연회비 정책 변경사항 및 회원사 혜택 안내, △이행보고서(COP) 정책 변경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회원사 Open Day 에서는 UNGC 소개와 가입절차, 로고정책 등이 추가로 안내되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ESG 내재화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전세계 기업 사회의 패러다임이 ESG 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시대적 요구 속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당부 및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회원사 Open Day 에서는 전년도 한국협회 주요 활동 리뷰 영상을, 비회원사 Open Day 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소개 영상을 시청하며 UNGC 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2022 년을 돌아보며 UNGC 임팩트를 브리핑하였습니다. ‘Target Gender Equality LIVE’, ‘Leaders Summit’, ‘Uniting Business Live’와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의 개최 성과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앰비션 포 1.5°C’, ‘해양 스튜어드십 연합’, ‘SDG 16 프레임워크’, ‘LGBTIQ+ 성 격차 분석 툴’,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금개선’ 등과 같은 주요 글로벌 서약, 협의체 및 툴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UNGC 10 대 원칙 내재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공정한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브리프”,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개정본”, “에너지 산업 반부패 리포트” 등 2022 년도 주요 발간물을 소개했습니다. (홍보 문의: 김의준 연구원).

다음으로 2023 년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중점 아젠다인 △기업과 인권, △DEI, △환경, △반부패, △ESG 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과 연간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ESG 멘토링, 인권·환경·반부패·ESG 실무그룹,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타깃젠더이퀄리티(TGE)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각 기업 및 기관이 지속가능성 전략을 구체화 및 고도화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문의: 이선미 팀장).

이어서 회원사 Open Day 에서는 연회비 정책 및 혜택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UNGC 의 모든 회원사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E-learning 플랫폼인 아카데미(Academy) 서비스의 강화, 온라인 학습과 워크샵이 결합된 6 개월 간의 교육 프로그램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확대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사가 기여할 수 있는 특별 후원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한편 비회원사 Open Day 에서는 신규 가입 절차와 함께, 연회비/로고 정책, 홈페이지 계정 이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예비 회원사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 장한별 과장)

다음으로 이행보고서(COP) 및 참여보고서(COE)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올해부터 영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개정 COP 정책을 중심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표준화된 질문지로의 전환, 제출기간 일원화(3~6 월), CEO 지지선언문 작성 등이 소개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2 월 16 일 COP 설명회에서 다루어짐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비영리 회원사는 기존 COE 정책이 유지됨을 안내했습니다. (COP/COE 문의: 이상현 과장)

마지막 순서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사 질의 응답 시간에는 COP 정책 및 질문지에 대한 세부 질의와 함께 실무그룹, ESG 멘토링, 액셀러레이터 등 각 프로그램의 상세 운영 계획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비회원사의 경우 로고 사용 정책,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방법, 연회비 납부 등 가입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4 월 6 일 예정된 총회와 ESG 멘토링 프로그램 모집, COP 설명회 개최 등을 재차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 월 21 일 진행된 **LEAD 그룹 간담회**에서는 지난 Korea Leaders Summit 을 통해 선정된 10 개 LEAD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진 간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 년도 UNGC 한국협회 LEAD 회원사는 KB 증권, CJ 제일제당, DRB 동일, GS 칼텍스, 근로복지공단, 유한킴벌리, 포스코, 한국콜마홀딩스, DGB 금융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총 10 개사입니다.

UNGC 한국협회는 먼저 2023 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브리핑한 뒤 ESG 멘토링 ‘멘토’ 지원, 실무그룹 Co-chair 참여, ESG 우수사례 적극 공유, 임원 참여 독려 등 LEAD 그룹의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회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LEAD 회원사의 의견을 듣고 각 기업/기관의 중점 ESG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EAD 그룹의 공통적인 중점 과제로는 공급망 관리, ESG 위원회 운영 개선, 임직원 ESG 내재화, 지속가능성 공지 준비 등이 언급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관심 주제로는 소셜 임팩트 측정, 다양성·포용성·형평성(DEI) 이슈, 제품 패키징 개선, 생물 다양성, Scope 3 관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원사 간 네트워킹의 확대, 공공기관 간 공동 활동 추진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기후 행동” 웨비나 결과공유



- 일시: 2023년 3월 2일 목요일 16:00-17:45
- 장소: ZOOM 웨비나
- 참여기업/기관(가나다순): Amazon Web Services, Apple, British Embassy Seoul,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DGB 금융지주, DRB 동일, DRB 오토모티브, Enel, ERM, ERM Korea, ESGIN, HL 만도, HSBC, KB 증권, Korea Life-long Education CO., LG 생활건강, LG 에너지솔루션, LG 이노텍, LG 화학, LS 전선, LX Semicon, NH 투자증권, PHA Co., LTD., SK E&S, SK 네트워크, SK 이노베이션, SM 엔터테인먼트, SK 하이닉스, TKG 태광, WENITECH, 동일고무벨트(주), (주)두산, 두산에너지빌리티, 롯데렌탈,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쇼핑 e 커머스, 롯데정밀화학, 마스틴투자운용, 미래에셋증권, 보성 그룹,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주)연우, 영원무역, 에코앰파트너스,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EMC), (주)엠아이시유,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주)케이씨씨글라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포스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유미코아축매,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씨티은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한미약품,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주),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67 개)

3 월 2 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의 일환으로 인플루언스맵,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와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기후 행동” 웨비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본 웨비나에는 총 67 개의 기업/기관에서 130 여명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 혁신과 기업의 정책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발제

발제 1: The Role of Policy to Enable Offshore Wind In the UK
(Huub den Rooijen, Advisor (Former Director of Energy, Minerals and Infrastructure), The Crown Estate)

발제 2: Japan's Renewable Energy Policy and the Japan Climate Leaders Partnership (Yuki Otaka, Policy Researcher, Japan Climate Leaders Partnership (JCLP))

발제 3: Enel's Renewable Energy Policy Ambition in the EU
(Francesca Manni, Head of Climate Change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Enel)

발제 4: Apple 2030 Carbon Neutrality Renewable Energy (Han Chen, Head of APAC Clean Energy Policy, Apple)

발제 5: CLG Europe's Business Leadership for a Climate Neutral Economy (Romain Pardo, Programme Manager, Climate Leaders Group Europe)

발제 6: Corporate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in South Korea (Youngwoo Lee, Team Lead, LG Electronics)

2부. 패널토론

- Moderator: Yuna Chang, Influencemap
- Huub den Rooijen, The Crown Estate
- Yuki Otaka, JCLP
- Francesca Manni, Enel
- Romain Pardo, Programme Manager, CLG Europe
- Youngwoo Lee, LG Electronics

3부. Q&A



*본 웨비나는 **채텀하우스 규칙(Chatham House Rule)**을 적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언자는 익명처리하여 결과공유합니다.

이날 발표자 1 은 한국의 탄탄한 산업기반과 재생에너지 전환으로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에너지 전환은 편재성(Ubiquity), 형평성(Equity) 및 문화(Culture)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여섯 가지 테마("6Ps")로 △장소와 허가(Place & Consenting), △항구와 제조(Ports & manufacturing), △생산과 산업(Production & Industry), △인적자원(People), △전력 시스템(Power System) 및 △정책(Policy)을 소개하며, 이중 마지막 테마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혁신과 정책 시그널이 병행될 경우 에너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기업의 행동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비즈니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이자 유권자가 요구하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함을 당부했습니다.

또 발표자 2 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단순히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EU, 독일, 영국 등 주요 산업국을 필두로 한 국가간 산업경쟁의 문제이며, 따라서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정책이 없을 경우 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도태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힘쓰고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급성장하는 RE100 이니셔티브, 감소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들에게 비교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임을 설명했습니다.

발표자 3은 기업의 기후 행동과 정부의 기후 정책 간의 선순환 모델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들 사이에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피드백 모델을 구축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기후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4A")로 △앰비션(Ambition), △행동(Action), △옹호(Advocacy) 및 △책임성(Accountability)을 언급하며, 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수립한 목표를 기업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기후과학 및 다양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정책 옹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 및 Q&A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써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정책 개선에 참여하려면 많은 수의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수임을 당부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역량 강화 및 기후 리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김예영 연구원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4. 기후 앰비션 엑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모집 안내



기후 앰비션 엑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CAA) 프로그램은 기업이 1.5°C 경로와 일치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설정과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참여기업은 글로벌 모범 사례, 동료 간 학습 기회, 역량강화, 온라인 학습(온디맨드) 교육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집은 **4월 30일에 마감되며, UNGC 회원사만 참여 가능한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여 혜택

-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감축목표 설정방안 제시
- 방법론, 요구사항,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넷제로 개념 이해
- 기업 상황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온디맨드) 세션 활용
(온디맨드 세션은 모두 국문으로 제공)
-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기회 확보
- 글로벌 통찰력 및 모범 사례 제공
- 워크샵에서 공유되는 동료 기업의 의견 및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가능
- 프로그램 완료 시 수수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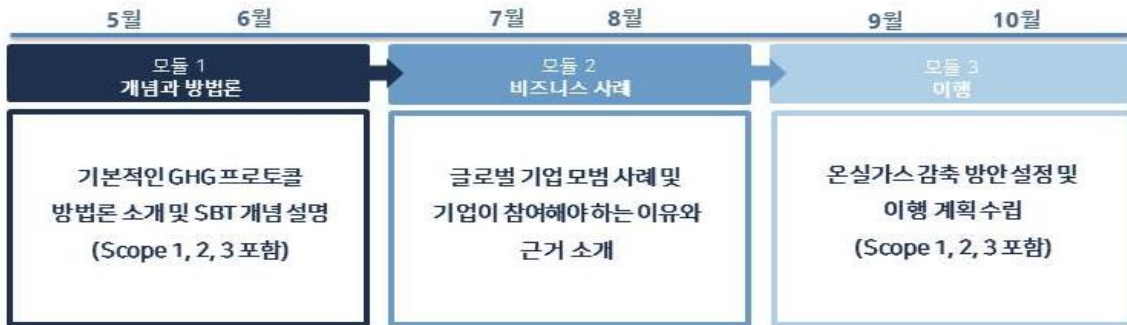
참여대상

- GHG 배출량 산정, 관리, 보고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실무진 2인과 고위급 미팅 참여를 위한 C-level 담당자 1인
- 과학에 기반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관심 있는 기업

프로그램 일정(안)

세부 내용	일정(안)
참여 기업 모집	2023년 3월 2일~4월 30일
kickoff 및 OT 세션	2023년 5월
모듈 1	2023년 5월 ~ 6월
모듈 2	2023년 7월 ~ 8월
모듈 3	2023년 9월 ~ 10월

프로그램 내용



모듈 별 세션

모듈 1	개념과 방법론
온라인 학습	GHG 개념: Scope 1, 2, 3, 직접/간접 온실가스 배출 (선택사항)
온라인 학습	Scope 3 개요: 범주, 도구 및 공급업체 관리
워크샵 1	Scope 1, 2, 3 질의응답 세션
온라인 학습	중소기업의 SBT 방법론 (선택사항)
온라인 학습	SBTi 소개: SBTi 디프 다이브, 방법론, 도구 및 기준
온라인 학습	SBTi: 넷제로 표준(Net-zero Standard)
워크샵 2	SBTi 및 넷제로 표준 질의응답 세션
워크샵 3	GHG 프로토콜 실습 세션

모듈 2	비즈니스 사례
온라인 학습	SBTi 비즈니스 사례: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KPI 및 성과
온라인 학습	기업 사례: SBTi 설정 기업 사례
워크샵 4	국내 기업 사례 공유
워크샵 5	SBTi 실습 세션
워크샵 6	섹터별 SBTi 질의응답 세션

모듈 3	이행
온라인 학습	Scope 1, 2: 단계별 글로벌 배출량 관리
온라인 학습	Scope 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관리
워크샵 7	Scope 1, 2, 3 관리: 배출량 감축 활동 질의응답 세션

CAA 참석 신청하기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신청 현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조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내 보안정책 등으로 구글 설문지 링크 접속이 어려우실 경우 CAA 참가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에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한별 과장, 김예영 연구원 (070-4327-9768,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5. Monthly Insights 3 월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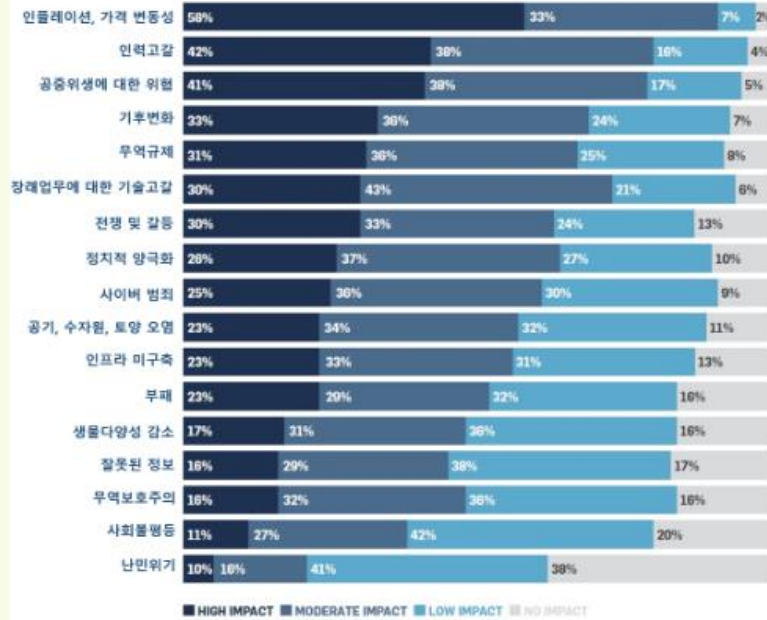
Monthly Insights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과 CEO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3월 Monthly Insights는 지난달 UNGC와 Accenture가 발간한 제 12차 CEO Study의 주요 내용을 전달합니다.

1. 글로벌 리스크의 위협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CEO설문: 다음과 같은 글로벌 위협들이 귀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업이 직면한 17개의 글로벌 리스크의 목록에서, 93%의 CEO들은 현재 10개 이상의 리스크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6%이상의 CEO들은 17가지 리스크 모두에 대비 중입니다. 또한, 91%의 CEO들은 과도한 기업의 경쟁우선순위가 회복탄력성 구축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Transworld Group의 의장 라메쉬 라마크리쉬난(Ramesh S. Ramakrishnan)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너무나도 많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둘러싸여 있다. 세상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과거의 데이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는 당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번 Monthly Insights 3 월호에서는 부상하는 글로벌리스크들에 맞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CEO 들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전 세계 CEO 들의 제언과 전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회복탄력성은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렉 케이스 (Greg Case)

| 보험 중개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Aon사의 CEO

Q. 2005년 CEO 부임 이후, Aon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변동성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CEO로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Aon은 회복탄력성을 기업이 키워야 할 핵심역량으로 받아들여, 여러 위험으로부터 기존 비즈니스 영역을 보호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변동성의 시대에 '보호와 새로운 성장' 두 가지 키워드를 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회복탄력성의 요소로서 조직역량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점차 빠르게 고도화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와 목표지향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디 아스킨 (Heidi Askin)



|150년 전통의 프랑스 식품 회사
Bel사의 전략기획이사

아스킨은 시스템과 운영방식이 고착화된 거대 식품기업 Bel사의 조직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20인의 경영진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을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회복탄력성의 8가지 축(Axis)을 도출하여 공유합니다.

• 기업 회복탄력성의 특성

기업은 흔히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KPI 등으로 수치화하기 용이한 자산과 자원의 분배 같은 경성요소(hard factor)강화 전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기반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자원과 같은 연성요소(soft factor)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스킨이 강조하는 회복탄력성에 포함되는 특성:

- 1) 코로나19와 같이 예측치 못한 위협의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 2) 기업의 강력한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
- 3)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4)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5) 소통, 정서적 교감

아스킨의 연구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소통과 정서적 교감입니다. 기존에 중시되던 경성요소에서 벗어나 조직의 기반이 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소통과 휴머니즘은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원의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Aon 사의 CEO 그렉 케이스(Greg Case)와 Bel 사의 전략기획이사 하이드 아스킨(Heidi Askin)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기업의 회복탄력성 구축 방안 등을 다루었습니다.

본부 소식



해운업 저탄소 혁명과
아프리카의 녹색 일자리 창출

본부 소식 코너에서는 해운업 분야의 저탄소 혁명과 아프리카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해양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해양 지도자들에게 아프리카 대륙이 해양 산업의 녹색 전환으로 새로운 직업과 훈련 장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기획재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ESG 공시 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등 ESG 전반의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작년 12월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가진단 지원을 위해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EU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정부 "2025년 ESG 공시 의무화 대비 기준안 마련"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 일터에서 성차별 없어지면, GDP 9000 조 증가? △ 환경부, 녹색채권 최대 3 억원 지원... "K-텍소노미 조기안착" 등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GENDER EQUALITY KOREA

젠더이퀄리티코리아(Gender Equality Korea, GEK)는 우리 기업의 성평등과 여성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UNGC 한국협회가 런칭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본 플랫폼은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국내 및 글로벌 여성정책 동향, 기업 다양성 우수 이행사례, 젠더 투자 사례 등, 다양한 GEK의 콘텐츠를 매달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Global]

여성 노동자와 기업의 인재 유치 위한 경쟁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다이찌산쿄(Daiichi-Sankyo)의 사례

GEK 코너에서는 S&P Global 의 여성 노동자와 기업 CEO 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팬데믹 이후 2022 년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이찌산쿄(Daiichi-Sankyo)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어떤 사내 진로 설계 세미나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의준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5051)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3.8 여성의날과 디지털 성 격차 해소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

미국, 뉴욕(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는 혁신과 기술 그리고 디지털 교육 분야의 성 격차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ICT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인력의 투입은 모두에게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3 월 8 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디지털 성 격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기업과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지만, 디지털 영역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남성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 평등 이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술 발전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The Brookings Insitution)의 광역통신망이 미국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광역통신망 구축이 빠른 경제 성장, 높은 소득과 낮은 실업률, 교육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증가, 그리고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3 억 2700 만 명 적었습니다. 또한 남아시아에서는 여성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70% 낮았고, 아프리카에서는 34% 낮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성들이 구축한 IT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5 세 청소년을 기준으로, 남자아이들은 5%, 여자아이들은 고작 0.5%만이 ICT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며, 두 배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엔지니어, 과학자 또는 건축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ICT 직군의 여성들은 같은 직급의 남성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Accenture 의 연구에 따르면, ICT 분야 내 유리 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 직원 50%는 35 세 이전에 일을 그만두었으며, ICT 분야의 임원급 임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에 불과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이점 강화

디지털 성 격차 해소가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이제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며 이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술 혁신이 창출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ICT 분야의 여성인력 증가는 더욱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유엔 젠더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ICT 분야의 디지털 성 격차로 인해 저소득층 국가와 중산층 국가에서는 1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성 격차를 해소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손실은 2025년 1.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성 격차를 해소할 새로운 디지털 기술 혁신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디지털 영역 내 포용성 구축은 비단 여성의 디지털 접근성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ICT 직군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IT 산업의 미래를 위한 도약

우리는 SDGs 목표의 한 부분인 성 평등 달성을 진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 ICT 전문가와 여성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디지털 성 격차는 21세기 사회적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여하기 위해 여성인권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유엔 회원국이 유엔 뉴욕본부에 모였습니다. 올해 핵심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혁신, 디지털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의 디지털 권리 증진입니다. CSW는 ICT 분야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디지털 성 격차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형 ICT 회사의 여성 인력 고용은 2022년에 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여성 인력의 산업 직군 참여 장려를 위해, 기업들은 포용성 있는 기업을 만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성 인력 고용과 승진을 주도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남녀 직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디지털 성 격차 해소를 실천하는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UNGC는 기업 여성역량 강화 원칙 분석 툴을 제공하여 4,000개가 넘는 기업이 이미 분석 툴을 통해 자사의 성 평등 달성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UNGC는 또한 40개국 800여개 기업이 여성 비즈니스 리더십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업은 60여개의 전 세계 지역 협회를 통해 더 많은 성 격차 해소 방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행복과 번영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성 격차를 좁힐 결정적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자세히 보기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업의 4 가지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기업의 임원들에게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 불안정성을 헤쳐 나가게 하였으며, 경영진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 기업도 참여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액센추어(Accenture)에서 진행한 CEO Study 에 의하면, 87%의 CEO 가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SDGs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작년 에델만 신뢰도 조사(Edelman Trust Barometer Special Report: The Geopolitical Business)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이 비즈니스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NGC 와 Thomson Reuters 는 50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글로벌 리스크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비즈니스 리더들이 제시한 기회와 딜레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 년 동안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네 가지 주요 변화를 정리하였습니다.

1) 비즈니스 리더의 새로운 역할

비즈니스 리더들의 사회적 역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는 민간부문이 단순히 자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UNGC-Accenture CEO Study 에서 91%의 CEO 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민간부문의 새로운 움직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다양한 대응 방법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 서비스 회사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투자 전략을 변경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의약품과 같이 러시아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와 직원들의 감축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난 후 러시아 현지에 있던 직원들을 다른 국가로 이직 시키는 방법을 통해 용이한 직원 채용을 하였습니다.

3) 조직 구성원: 기업의 새로운 핵심 동력

기업의 구성원은 기업이 가치를 형성하고 전쟁에 대응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이는 UNGC-Accenture CEO Study 에서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투자자와 소비자가 기업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4) 전환점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지원해야 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부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전략을 미래의 전망을 향한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부터 기업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UNGC 10 대 원칙에 포함된 가치가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과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KUMHO TIRE
All-Ways, Go With you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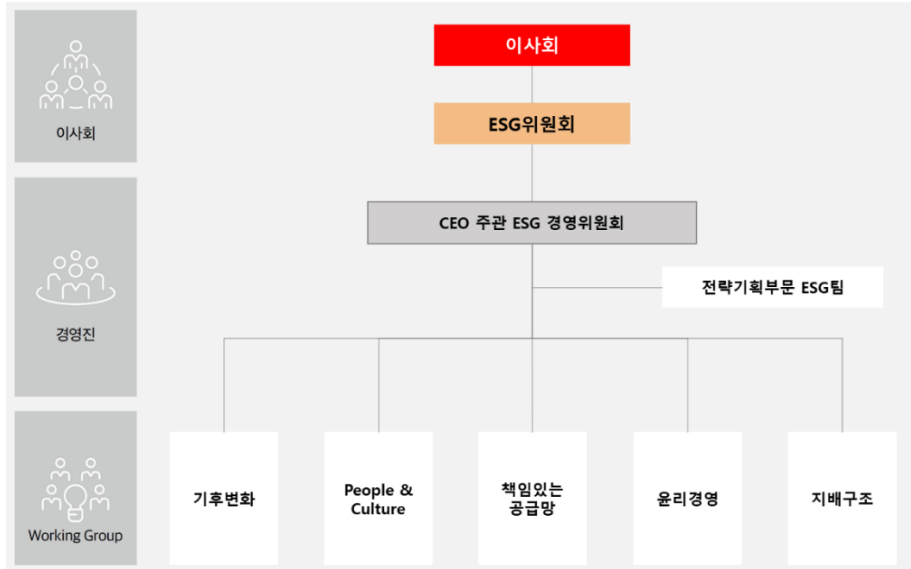
1. 기업 소개

금호타이어는 1960 년 첫 타이어 생산 이래 세계 최고 품질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8 개 생산공장, 9 개 판매법인과 13 개의 지사 및 사무소를 거점 삼아 전 세계 180 여 개국으로 연간 2 조원 이상의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현대기아자동차, 폭스바겐, 벤츠, BMW, 르노 등의 완성차 기업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특성과 운행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한 초고성능 타이어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생각하는 친환경 타이어까지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 ESG 경영 거버넌스 체계

금호타이어는 2022년 4월 세계 최대 자발적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참여하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의 10대 원칙 준수와 내실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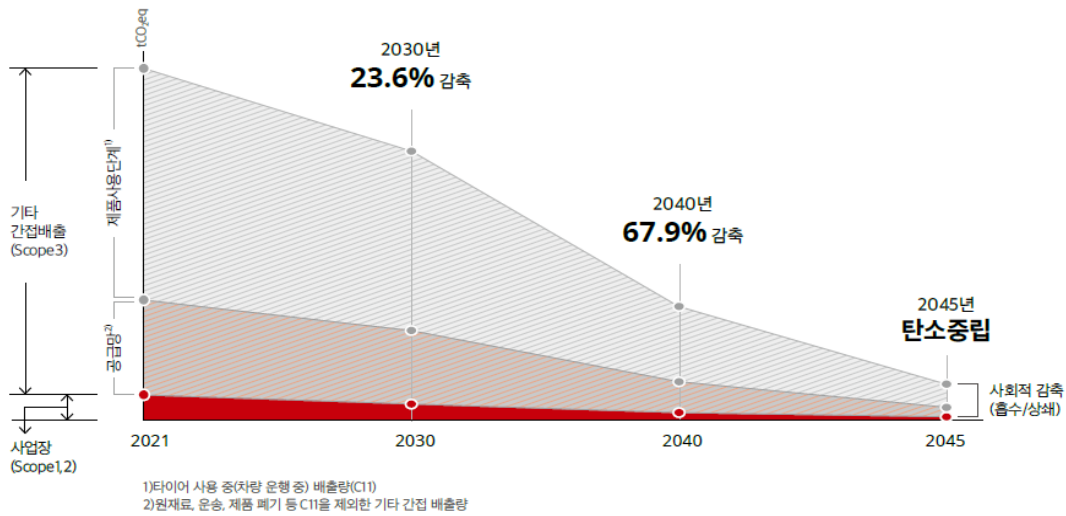
23년 2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회 수준에서 ESG 관리를 추진합니다. ESG 경영 전략수립,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비재무 리스크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전략에 ESG 이슈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또한, CEO 산하 ESG 경영위원회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People & Culture, 책임있는 공급망, 윤리경영, 지배구조 등 핵심 관리 이슈에 따른 5대 Working Group 을 구축하여 실무레벨에서 Function 별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사례

■ 2045 탄소중립 목표 수립

금호타이어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경영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EU 탄소국경세 도입, 한국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등 법/제도 대응뿐만 아니라 완성차 기업과의 비즈니스 지속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국내외 사업장 배출량(Scope1, 2)과 공급망(Scope 3)까지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할 계획입니다.



구분	'22~'23년	'24~'30년	'31~'45년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관련 성과 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성과 모니터링 및 고도화
Scope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ope 1,2,3 인벤토리 구축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방안 수립 및 추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협력사 평가, 관리 지표 수립 LCA(전과정평가) 시행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공해차 수송 및 선박 연료 전환 지속가능한 원재료 사용 확대 친환경 타이어 개발 확대 제품 친환경 인증 확대 폐타이어 관리 체계 구축 협력사 기후변화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수/상쇄를 통한 감축 활동 추진 연료전환 지속가능한 원재료 100% 적용 순환경제 체제 확립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Ti(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 가입 및 목표 수립 준비 CDP Climate Change, Water Security 참여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Ti 제출 및 승인 이슈별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생물다양성 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Ti 성과 점검 및 목표 재수립

<2045 탄소중립 로드맵>

SBTi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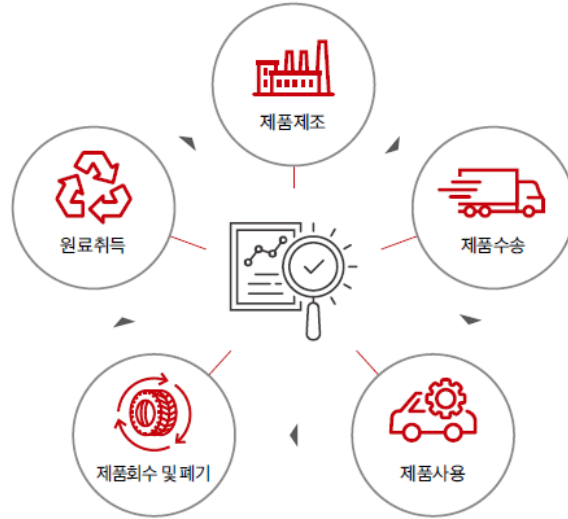
금호타이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있어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2022년 7월 SBTi에 가입함으로써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4년 상반기 내 감축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 LCA(전과정평가) 프로젝트 추진

금호타이어는 원재료 취득-제조-수송-제품 회수-재활용 등 타이어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EV6 전용 타이어 모델에 대해 LCA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LCA 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LCA 결과를 온실가스 감축 실행 및 친환경 타이어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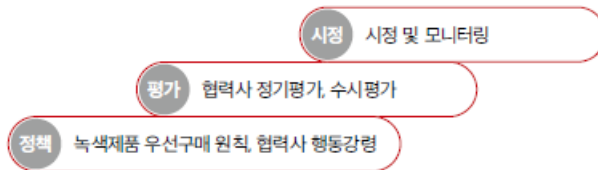


〈LCA 프로세스〉

■ 공급망 ESG 관리 추진

독일 공급망실사법 시행, EU 공급망실사지침이 가시화되면서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은 인권과 환경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망 ESG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ESG 정책의 일환으로 협력사 ESG 평가 및 교육을 통해 공급망 ESG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단/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공급망 관리 현황(유형 및 등급별 협력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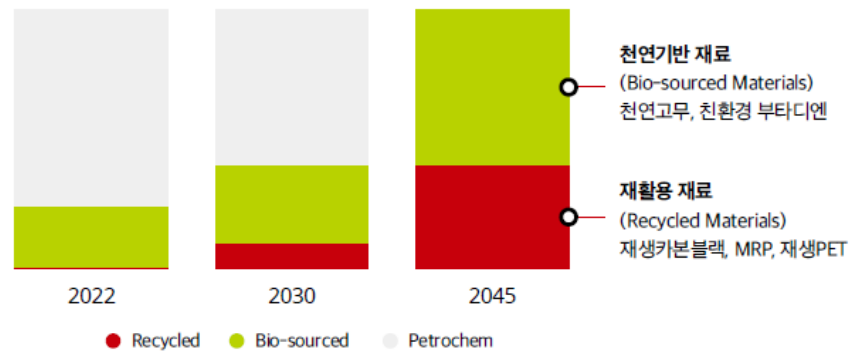
	구분	원재료	설비
국내	전체 협력사 수(개사)	117	530
	주요 협력사 수(개사)	45	6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및 현황〉

■ 지속가능한 재료 개발 및 연구

금호타이어는 친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바이오 기반 재료 및 재생·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컴파운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타이어 소재로 사용 가능한 친환경 신소재 발굴을 위해 기초 R&D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폐타이어 열분해로 인해 얻어진 카본블랙, 폐타이어의 분쇄 가루 등에 대해 물질 연구를

진행하였고, 재생 부틸 고무의 적용 비율을 확대한 컴파운드 개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재료 적용 로드맵>

또한, 2005년 출범한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산하 타이어산업 프로젝트(TIP, Tire Industry Project)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WBCSD-TIP에 속한 11개 회원사(국내 업체 2곳, 글로벌 업체 9곳)는 세계 타이어 생산능력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타이어 생산 및 폐기 과정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 논의를 진행합니다. 당사는 타이어 및 도로 마모입자, 나노 소재, 페타이어 활용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2021 WBCSD-TIP 연구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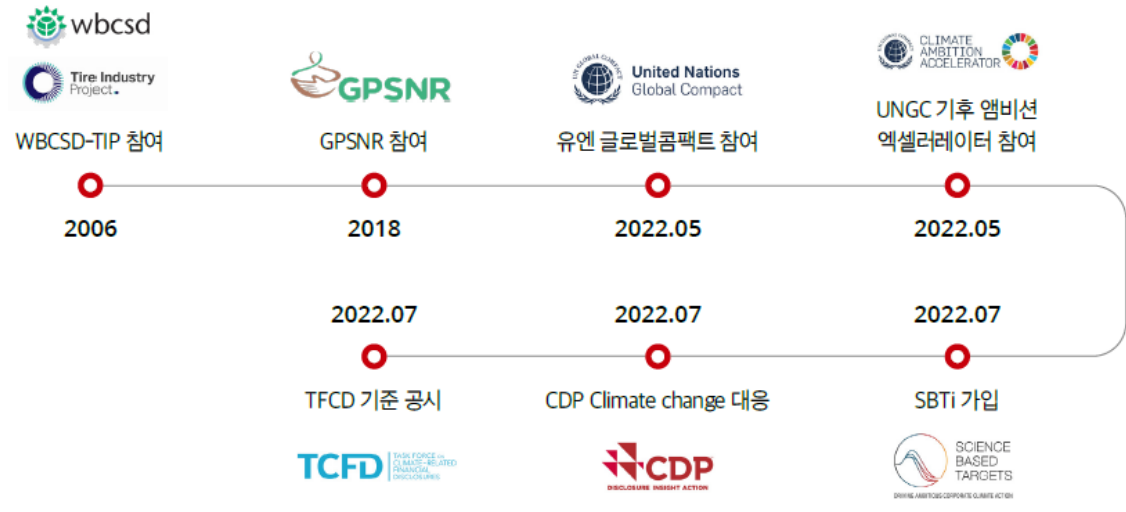
	
해양환경의 타이어 마모입자 유해성 연구	페타이어 활용 기술과 관리 기준 연구
	
타이어 마모입자 분포 모델링 개발에 관한 연구	타이어 분말(Tire Granulate) 유해성에 관한 연구

4. SDGs 기여 및 참여 글로벌 이니셔티브

금호타이어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SDGs 슬로건을 지지하며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금호타이어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이슈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한국남동발전, 대기업과 잇단 'RE100' MOU



- RE100은 기업 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이고 '국제적'인 기업 간 협약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선제적 RE100 이행 방침이 국제 협력사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납품 조건으로 RE100 이행 동참을 권고하고 실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RE100 제도 도입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에 대한 신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수출산업 대기업들과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의 선제적 RE100 상생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 선점 및 재생에너지 매출 구조 다변화를 통한 사업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매일경제

2. Sh 수협은행, 유엔 여성역량강화 원칙(WEPs) 가입



- Sh 수협은행은 여성역량 강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엔 산하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하고 글로벌 수준의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 WEPs은 유엔의 '2030 지속가능목표 SDG5(성평등)'의 일환으로 직장 및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지난 2010년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이며, 전세계 약 6600개 기업이 가입해 원칙을 지지하고 있음.
- 수협은행은 WEPs 가입에 따라 이같은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다양성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실질적 활동계획을 수립해 적극 실천해 나아갈 방침.

글로벌이코노믹

3. "친환경 이어 장애인 고용 창출"...코웨이, ESG 경영 확대



- 코웨이는 2021년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장애인 고용,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주요 사업장인 유구 물류센터(1048.8KWh 규모), 유구공장(49.5 KWh 규모)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와 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장애인 고용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휠체어농구단 선수 전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물빛소리 합창단' 창단을 통해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음.

뉴스시스

4. SK 케미칼,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 가입..."넷제로 달성 속도"



- SK 케미칼은 '과학 기반 탄소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에 가입했다고 20 일 밝혔.
- SBTi 는 2015 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연합기구로, 다양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가이드를 지원하고 목표를 검증 및 승인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 SK 케미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내에 SBTi 에 목표를 제출할 예정임.
- SK 케미칼은 2040 년 사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100%(상쇄포함) 감축하는 구체적 목표와 생산되는 제품의 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50 년까지 2021 년 대비 91% 감축하는 장기전략도 발표한 바 있음.

그린포스트코리아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10 곳입니다.

- SK 실트론
- 팬택씨앤아이
-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 피앤에스네트웍스
- 피앤에스로지스
- 발렉스서비스
- 발렉스특수물류
-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 펄텍코리아
- 한국청과

2. COP/COE 제출회원

2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5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국제협력단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 한국환경공단
- 밀알심장재단
- 서울산업진흥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개정 COP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 회원

2023년도 개정 COP 정책 도입에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초,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는 오는 2023년부터 영리 회원사들이 모두 응답해야 하는 COP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한국협회에서는 총 13 개의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가 제출한 COP는 UNGC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고무벨트
- DRB 동일
- DGB 금융지주
- 만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애큐온캐피탈
- HK 이노엔
- 유한킴벌리
- 콜마비앤에이치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
- 호성첨단소재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비영리 회원사는 내년도 동일하게 기존 COE 정책대로 COE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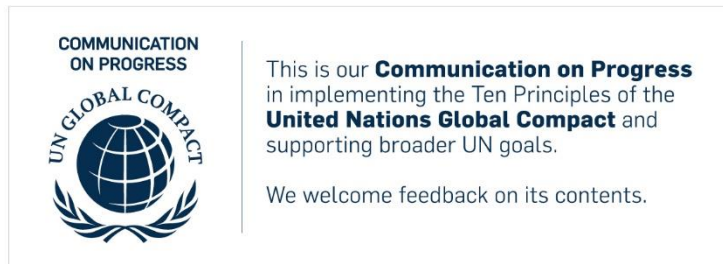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